성령 안에서 보는 하늘보좌

(계4:1~4)

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 또 보좌에 둘려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보는 하늘보좌>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성령 안에서 보는 하늘보좌!
마침내 오늘 하늘나라에 계시는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요한이 직접 보면서 느낀 느낌들이 계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화산에서 이 사도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님이 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반응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냉랭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목수 출신으로서 나사렛에 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따라 다니다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 누구도 저렇게 하얗게 빨래 할 수는 없다, 너무너무 하얗게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고 쇼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두려움과 좋음의 감격과 막 믹스가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동시에 황홀경에 빠져 가지고, 무한한 매력에 끌려들어가 버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에 빨려 들어가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여기서 평생 살자'고 얘기합니다.
평생 살 사람이 초막 셋을 짓자고 얘기해요.
말이 됩니까?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평생 살겠습니까?
그 이 반응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의미가 있잖아요?
이 반응만 봐도 주님이 어떠셨던가 하는 것을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물론 보석이라 그래요.
벽옥 같다, 홍보석 같다, 무지개가 둘러쳐져 있는데 녹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꼭 무슨 공장이나 뭐 어디 시설물을 시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글을 적는 보드 판을 갖고 다니면서, 관찰하고 그 기록을 적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딱 올라갔더니, '아!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디 한 번 봅시다. 아, 이게 벽옥 같구나! 아닌데? 홍보석 같은데 무지개가 둘러쳐져 있네! 아! 녹보석 같기도 하다.'
이렇게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 우리가 또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읽는다는 얘기를 하냐 하면, 요한계시록이 보통 시끄럽고 복잡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보다 한 3배 이상의 책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연구서들을.
근데 그 연구서들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지금 하늘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창조주이시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다, 영원하시다…
이런 온~갖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감도 못 잡을 모든 묘사가 다 적용되고 있는 그분을 직접 보고 있는데, 이 수첩에다가 아! 저분은 벽옥 같구나, 홍보석 같구나, 이렇게 적고 있겠습니까?
이 순간은 쇼크이어야 돼요, 쇼크! 충격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래서 연구서들 보면 하나같이 이 24보좌에 앉아 있는 24장로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를 따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이런 것일까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24장로들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요한이 지금 성령님에 감동돼서 하늘나라에 이끌려서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도 24장로들도 요한에 대해선 아랑곳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요한이 올라온 거를 모른 체 하시는 건지 모르고 계시는 건지 그냥 객관적으로 요한에게 묘사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이해의 틀이 이게 맞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이해의 틀 자체가 그릇된 겁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겁니까?
앞에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기 전에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1장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성령의 감동되었더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적인 장면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마치 사도요한이 시설물들이나 공장을 시찰하면서 자기가 관찰한 거를 객관적으로 자기 느낌대로 적어 가듯이, 그렇게 적은 것으로 알고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요한은, 사도요한 그분이 계시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서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나라 보좌 앞에 이끌려가 보좌를 보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인 거예요.
지금 7억 명의 개신교인, 아니 12억 명의 천주교도까지,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성경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요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요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게 되는 상황으로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이렇게 떨떠름하고 냉랭하게 묘사가 되는 것은,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에서,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어떤 연구서를 보면 이건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냥 상징적으로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가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지요.
사도요한 속에는,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작용하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밧모 섬에 있다는 공간적 세계관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계는, 하늘과 공중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우주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공중에는 우리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있는 공중의 차원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형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간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전부 육체가 있는 땅을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육체가 있는 땅을 향하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육체의 5감각이 있습니다, 5감각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는 이 세상 사물, 사람들을 통하여 마음이 기뻐하려고 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우리 마음이 있는 공중 사이에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38선처럼 통일되기 전 동서베를린 장벽처럼.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인간을 지배하는 형태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땅에서 육체를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며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중과 하늘에 막혀있는 담을 뚫고 통로를 만드신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건 바로 그 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사도요한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마음을 드림으로써, 이 땅을 살지만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이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서 땅을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사도요한은 하늘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사도요한의 인격 자체가 성령님 안에서 하늘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뭐냐?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대로 말하자면,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말은 '내가 곧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엔 싸르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마음이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치되는 상황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격 우리 마음이 육체 안에 있으면, 육체가 갖고 있는 다섯 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느낌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그 느낌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싫다 좋다, 좋으면 끌어당기려 하고 싫으면 밀쳐내려 하고.
그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으로 보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 이 다섯 감각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이 5감각이 일단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꼬집어도 모르죠, 불고기를 코끝에 갖다 대도 냄새를 못 맡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 못하고, 눈꺼풀을 억지로 벌려도 볼 수가 없습니다.
5감각이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 안에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 않았는데 마치 뇌에 전달되는 5감각의 신경이 끊어진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헬렌 켈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헬렌 켈러보다 더 하게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도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고.
그러니 5감각이 끊어져 있으니 암흑 중에 암흑 5중의 암흑 아니겠습니까?
그때 성령이 오시면서 살아있는 사도요한의 인격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5감각이 죽어버리고 성령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을 마음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도 이미 성령 안에서 들은 계시였잖아요?
근데 일곱 교회는 땅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보는 하늘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땅을 사는 법과 하늘을 사는 법이 보여 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땅을 살 때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사도요한이 목회하던 곳이니까 사도요한의 눈과 귀와 촉각이 다 일곱 교회의 상황과 사람을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일곱 교회라는 대상에 대해서 5감각이 죽어버리고, 성령 안에 있으면서 성령이 이 땅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곳에서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산다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는 대상들을 우리가 육체의 5감각으로 접하고 얼마든지 느낌을 받고 판단하고 생각하여 반응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어버림으로써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고, 성령께서 이 세상의 대상들을 대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느끼게 되는 느낌에 대해 반응하며 사는 게 성령을 쫓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좌를 성령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지금 벽옥이다 홍보석이다 무지개가 둘렀다, 녹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벽옥 같은 모습으로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홍보석 같은 모습으로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5감각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도요한의 마음과 연결된 5감각의 신경이 끊어져버렸어요.
그리고 사도요한의 인격이 성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각이 돼주셔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서 사도요한의 마음에 전달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사도요한의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이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마음에 느낌이 있는 것처럼,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감각기관이 돼서 하나님의 모습이 마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전달이 되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큰일 났어요.
성령님이 감각이 돼가지고 눈으로 귀로 촉각으로 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접하면서 보면서 마음에 느낌이 생겼는데, 이 느낌을 이제 어떻게 표현해낼 겁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봤는데, 느낌을 갖고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데, 사도요한이라는 인격을 벗어나서 전달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도요한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요한이라는 인격이 일평생 동안 경험하고 가질 수 있었던 이 세상의 언어들 중에서, 그래도 이 느낌을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일까를 찾아낸 것이, 기껏 벽옥이고 홍보석, 무지개 같고 녹보석이라는 언어로 표현해낸 겁니다.
이렇게 사도요한이 난관에 처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영이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보석 같겠어요? 물질인 보석은 아무리 제가 잘나도 시간과 공간의 세계, 이 땅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그런 모양이겠습니까? 뭐 보석 같은 모양이겠어요?
빛이라고 그러지만 진짜 영의 세계인 하늘나라에서 빛이 뭔지 우리가 알아요?
빛이라면 우린 지금 저를 조명하고 있는 빛이나 햇빛 이런 거밖에 상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5감각이 죽고 대신에 성령님이 감각이 돼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봤는데, 충격이고 쇼크입니다.
묘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의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굉장히 거창한 수식어들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맞지를 않아요.

이 보석이라는 건 극히 개인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여자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보석을 왜 좋아합니까?
아름답습니다, 그 광채와 색깔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도 세월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그런 아름다움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보석은 이 세상 안에서는 영구적입니다, 그렇게 강한 것이고 딱딱한 거예요.

딱딱하고 아름다워도 천지에 널려있으면 보석의 의미가 없어요, 희귀합니다.
희소성이 극에 달한 것들이 보석이에요.
여자들이 보석을 보는 마음이 그 보석의 아름다움과 소유했다는 기쁨에 빠져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심판주, 이런 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여자가 보석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장롱 속에 몰래 보석을 놔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꺼내보면서 아름다움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날 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느껴지기를 그냥 매력덩어리인 거예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보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더 이상 내 마음을 잡아끌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할 수 없다고 느껴질 만큼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멋있고, 그런 분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한 마디로 아름다워서 미치게끔 마음이 끌리는 분으로 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산의 경험과 합쳐보면, 그 하나님을 일단 보고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끌려갈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매력을 지니신 분으로 묘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란 게 보석으로 묘사되는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이다 홍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속의 느낌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데, 푸른빛의 보석 같아요, 그런데 그 표현만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니야, 푸른빛의 보석만은 아니고 붉은 빛의 빛깔을 내는 보석이기도 해! 아니, 이것 갖고도 모자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일곱 가지 색으로 둘러쳐진 무지개광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부족한데,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기가 녹보석 같기도 해.'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아름다움과 매력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게 앞의 보석 같다는 표현의 의미라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매력적이라서, 내 마음을 잡아끄는 그 힘 앞에서 내가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줄 수도 없고 마음의 시선을 돌릴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아름다우신 분, 그렇게 좋으신 분,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난데없이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연구서들을 보니까, 이 24장로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를 따지느라고 학자들끼리 논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그런 뜻이겠습니까?
24장로들이 누구냐를 따져야 되는 거, 이거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본문의 의미가 이걸 따지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보세요, 성령님 안에서 하늘로 번쩍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감각기관이 돼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그 매력과 아름다움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으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서있는 나를 느끼는 겁니다.
아니, 저분은 저렇게 매력덩어리인데!

마치 젊었을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유명한 스타가 되었어요.
자기는 아이 둘 낳고 아이 키우느라고 정신없는 주부에요.
아이 들쳐 업고 장보고 오는데, 난리가 나서 가보니까 촬영 현장인데, 거기에 기가 막히게 쭉쭉 빠진 아름다운 여인과 그 옛날 남자친구가 연기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잠깐 자기를 본 거예요, 이때 이 아줌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지 않겠어요? 아이 들쳐 업고 장바구니 들고 머리도 안하고 화장도 안한 그 모습, 도망갈 거예요, 도망가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기계적으로 무의미하게 해석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봤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누구냐, 저렇게 매력덩어리이시고 아름다우신 그 마력에서 헤어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대체 누구냐, 묻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성령님을 통해 내 마음에 전달되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느낌을 도대체 뭐라고 표현할까, 이 세상의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래서 24장로가 나온 겁니다.

24장로는 뭡니까?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12지파를 의미하고 12제자를 의미하고 결국은 선택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느냐? 선택받은 자들의 대표를 말한다.
선택받은 자들은 좋은데 대표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24장로는 사도요한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속에서 사도요한입니다.
그러므로 24장로는 선민이라고 해서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선민들 중에 포함돼있는 내가 아닙니다.
대중 속에 섞여있는 내가 아니라, 한사람 한사람 1대 1로 상대해서 선택하여 뽑은 자들이고, 흰옷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상대자로 삼아주신다는, 아무런 다른 대상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매력에만 빠진 것처럼, 하나님도 마치 나 한사람만 상대한다는 것처럼 나를 상대해주시는 분,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계신 분이라는 걸 사도요한이 알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의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그 느낌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24장로, 그렇게 '한사람 한사람 선택받은 자로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모든 선민이 그렇게 한사람 한사람 하나님께서 1대1로 상대하시기 위해서, 거기다 금 면류관까지 씌워가지고, 모든 사랑과 칭찬을 다 주시면서 나를 상대해주시고,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요한이 느끼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도요한과 나와 너의 관계가 설정되고,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그 마력에서 헤어날 수 없는 좋은 하나님.
그러므로 지옥이란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매력적인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그분의 매력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게 무의미하다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재벌들에게도 알려지고 예수 안 믿는 임금과 왕, 대통령에게도 알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었던 것 재벌이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보고나면, 어떡하든지 그분에게 머리카락만큼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은 게 소원이 될 텐데, 영원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버려지는 것, 이게 지옥이죠.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성령에 감동됨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십자가의 약속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인데,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이 땅을 살고 성령 안에서 하늘의 생각들을 받아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